

소쇄원 원림과 고암 양자징의 문학

김대현*

차 례

1. 머리말
2. 소쇄원과 고암 양자징
3. 고암 양자징의 문학 작품
 - 1) 고암의 운문
 - 2) 고암의 산문
4. 고암의 문학세계
5. 맺음말

|국문초록|

소쇄원은 16세기에 조영된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원림이다. 소쇄원은 창건자 이후로도 많은 후손들이 신경을 써서 원림을 가꾸어 나갔다. 이 글에서 소쇄공 양산보의 아들인 고암 양자징(梁子澂, 1523~1594)의 문학에 대한 연구를 간단하게 하려고 한다. 이는 고암의 문학에 대하여 처음으로 살펴 본 것이다. 고암은 여러 면에서 많은 후학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더구나 다 알다시피 하서 김인후 선생의 사위였기 때문에, 관련 문헌들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다.

고암은 다양한 문학 활동을 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작품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많은 작품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현재 몇 수가 남아 있는 그의 절구 시들을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정적으로 묘사하는 탁월한 작품이 있었다. 지금 고암의 작품은 한시 작품이 모두 10여수가 남아 있고, 산문은 3편이 남아 있다.

남아있는 작품들이 한시에서는 여섯 수나 하서와 관련된 작품이고, 산문으로는 하서에 대한 「행장」이 남아 있다는 것은 하서와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의 남아있는 문학작품은 한 편 한 편이 모두 다 큰 의미가 있다. 산문에서도 기록문학으로서의 하서의 「행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장」을 처음으로 지은 것도 무척 의미 있는 일이다. 그 밖에 「무등산 기우제문」이나, 「계문」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도 그의 문학이 다양하게 폭넓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작품들이다. 비록 적은 수의 작품이 남아 있지만, 그의 문학이 다양한 주제로 전개되고 있었음을 유추하여 볼 수가 있다. 고암은 16세기 소쇄원 원림문학의 큰 문인이었다. 이 글에서는 남아 있는 고암의 작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그의 문학을 살펴보았다.

핵심어 : 소쇄원, 고암, 양자징, 『소쇄원사실』

1. 머리말

소쇄원은 16세기에 조영된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원림이다. 현재 소쇄원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찍이 조경학이나 건축학적인 연구에서부터 촉발되어, 소쇄원의 문학 연구, 역사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심도 있게 다양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학연구에서만 보더라도, 유명한 작품인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48영」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¹⁾ 이 작품은 우리 문학사에서 「비해당48영」을 이은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이에 대한 연구도 심화되어야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소쇄원 문학의 연구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찍이 소쇄원 문학에 대한 통사적인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연구를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 더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²⁾

무엇보다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 온 소쇄원 원림의 주인공들에 대한 개별적

1) 「소쇄원48영」은 매우 중요한 작품이어서, 최근에는 이 작품을 다양하게 조명하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임우남, 「소쇄원48영의 식물시어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년.

2) 소쇄원의 문학 활동을 통사적으로 살펴 본 연구로 권수용,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 활동 연구』, 경인문화사, 2009년. 가 있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소쇄원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 따라 문학의 내용을 살펴 본 것이다.

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문헌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한 연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원래 소쇄원의 창건자인 소쇄공 양산보의 경우도 많은 문학 작품을 남겼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사라지고 두어 편의 한시 작품만 남아 있다. 따라서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다.³⁾

소쇄원은 창건자 이후로도 많은 후손들이 신경을 써서 원림을 가꾸어 나갔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지 못하였으면 오늘날까지도 원림이 남아있지 못하였을 것이다. 지금도 후손들이 소유하면서, 후손들이 직접 원림에 살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이다. 그런 점에서 보아도 소쇄원에 살았던 후손들의 생애와 문학이 연구되어야 할 사람들이 여럿 있다고 여겨진다.

사실 현재 소쇄원의 창건자 소쇄공 양산보 이하 계속 내려오는 후손들은 그 작품들이 각각 적은 분량이지만 남아 있기도 하다. 이처럼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작품들이 남아 있는 곳으로는 호남 지역에는 해남 녹우당의 해남윤씨 가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 곳에서는 어초은 윤희정 이하 10대에 걸친 작품들이 남아 있기도 하다.⁴⁾

해남윤씨 문중은 또한 해남의 백련동 원림, 완도의 부용동 원림을 만들면서 문학 활동을 이어 나갔다. 마찬가지로 제주양씨 문중은 소쇄원 원림을 가꾸어 나가면서 문학 활동을 이어 나갔다. 필자는 그러한 후손들의 문학을 역사적으로 좀 더 살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일찍이 방암 양경지와 「소쇄원30영」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소쇄원은 유명한 「소쇄원48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암의 「소쇄원30영」이 있다는 것을 20여 년 전에 소쇄원 후손

3) 처사공 양산보의 「孝賦」는 그의 전해지는 작품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작품에 대하여 하서가 차운을 하였기에, 16세기 효행문학이 발전된 면이 있다. 이 작품과 『小學』의 정신을 비교 연구한 논문이 쓰이기도 하였다. 한예원, 「양산보의 「효부」와 『소학』 정신에 관하여」, 『한문교육연구』 31, 2008.

4) 해남윤씨 후손들의 작품들과 문헌들은 『당악문헌』 등으로 편찬되어 있다. 호남지방문헌연구소에서 그 필사본 책의 탈초 작업을 하여서 간행하기도 하였다. 『해남윤씨 문중문헌자료 총서』 전 10권, 정미문화사, 2012.

양재영 선생에게 듣고서, 관련 논문을 한 편 쓰게 되었다.⁵⁾

그 후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다시 소쇄원의 후손인 인재 양진태의 문학에 대하여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인재 선생은 비교적 문학 활동도 활발하였으며, 문중과 소쇄원에 대한 애착이 매우 컸던 분이였다. 그 때문에 그의 문학 작품을 살펴보게 되었다.⁶⁾

이들 연구 논문은 그 주제에 대하여는 모두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지만, 비교적 간단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것들이다. 특히 방암 양경지 문학은 현재 문집 『방암유고』도 있어서, 그 작품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후속 연구가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소쇄원 후손들에 대한 세 번째 연구로 소쇄공 양산보의 아들인 고암 양자징(梁子徵, 1523~1594)의 문학에 대한 연구를 간단하게나마 하려고 한다. 고암은 여러 면에서 많은 후학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더구나 다 알다시피 해서 김인후 선생의 사위였기 때문에, 관련 문헌들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한 편의 논문도 써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쇄공의 둘째 아들이자, 소쇄원을 실질적으로 잘 전승되도록 터전을 마련하였던 고암 양자징의 생애와 그의 문학을 간단하게나마 고찰하도록 하겠다.

2. 소쇄원과 고암 양자징

다 알다시피 소쇄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가 원림이다. 이 소쇄원에서

5) 김대현, 「방암 양경지의 ‘소쇄원30영’ 연구」, 『한국언어문학』 45집, 2000. 이는 필자가 전남 대학교에 부임하여 처음으로 쓴 논문이었다. 원래 작품은 ‘家山30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필자가 「소쇄원30영」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이는 물론 「소쇄원48영」을 의식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6) 김대현, 「瀟灑園事實에 실린 인재 양진태의 漢詩 고찰」, 『한국시가문화연구』 44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9.

이루어지고, 창작되어진 문학 작품의 수는 매우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황상 16세기 초반 창건 당시부터 소쇄원은 시단을 이룰 만큼 문학 활동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에, 분명히 상당한 작품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6세기 말 정유재란을 당하여 소쇄원이 화재가 나서 소실되었을 때 많은 작품들이 일거에 사라져버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16세기 소쇄원 주인들의 작품은 아주 일부만 남아 있다.

그 일부 작품들은 다행히 『소쇄원사실』이라는 책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바로 18세기 초반에 소쇄원 문학 작품집이 편찬되어 간행되어서 오늘날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존재야말로 무척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어느 원림에도 이처럼 문학작품들이 후손들의 시대 순으로 작품이 모아진 예가 거의 없다. 아마 그 비슷한 경우가 해남윤씨 백련동 원림을 중심으로 한 『당악문헌』의 경우가 아닐까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무척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소쇄원사실』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에 걸쳐 후손인 인재 양진태가 편집을 시작하였고, 아들 양채지에 의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편찬이 되었으며, 그 아들 양학겸에 의하여 간행이 되었다. 말하자면 삼대에 걸쳐서 수집-편찬-간행이 이루어진 것이다.⁷⁾

그런데 여기에서 밝힐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필자는 중간본 『소쇄원사실』은 석인본으로 1903년에 간행되었다고 알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 성과도 그렇게 되어서 무심코 그렇게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였다. 그런데 이 석인본 『소쇄원사실』은 사실 1963년에 간행된 책이다. 이 책을 간행한 양만환의 가장 마지막 발문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우리 선조 『소쇄원사실』이다. 그 편집과 인쇄의 전말은 종5세조 麟巖公의 발문에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불초의 천박한 글로써 감히 덧붙일 것이 없다.

7) 이러한 내용은 앞서 든 필자의 논문 「『소쇄원사실』에 실린 인재 양진태의 漢詩 고찰」에서도 언급하였다. 117~120쪽 참조.

그러나 연대가 오래되고 병화의 재앙으로 이 책이 남아 있는 곳은 집안의 한두 집에 불과하다. 지금 같은 世末에는 사람의 일에 변천이 있을 수 있으니 능히 명산名山에 묻힐까 걱정하여 불초가 집안의 후손 東鑄와 더불어 문중의 의전을 물어본 지 여러 차례 되었다. 그리하여 약간의 금액을 마련하여 인쇄인에게 맡겨 널리 배포하려고 하였다.⁸⁾ (중략)

이 책의 초간본은 목판본으로 18세기 초에 간행되었는데, 1963년에 다시 석인본으로 간행이 되었던 것이다. 초간본에는 1711년 발문이 있어서, 그 때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 따르면 이 『소쇄원사실』 목판본은 현재 下冊만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또한 저작자 표기가 鄭鎭河 編으로 잘못되어 있다. 석인본은 현재 조선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처음 1903년 간행으로 지금까지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⁹⁾ 그래서 후대 연구자들이 다 무심코 1903년으로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연구과정에서 잘못된 실수가 일어났고, 필자도 기존의 연구에서 잘못 표기하였다.¹⁰⁾

이 책 『소쇄원사실』을 보면, 소쇄원 주인공들의 문학작품이 세대 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상책 권1부터 권4까지는 소쇄공 양산보 관련 내용이고, 중책 권5부터 권8에는 고암 양자정에 관련 내용이다. 이처럼 처사공과 고암공의 분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이 두 분이 소쇄원에서의 위치가 어떠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권9가 지암공으로 되어 있다. 하책은 권10이 유사공 양천경, 생원공 양천희, 그리고 권11과 권12가 영주공 양천운이다. 권13에는 제현들의 ‘소쇄원제영창수추록’이 실려 있다. 이 권13은 인쇄공 이후 여러

8) 此篇, 我先祖瀟灑園事實也. 其輯編, 而刷印之原委, 咸備於從五世祖麟巖公之跋文, 以若不肖之淺薄, 不敢贅爲. 雖然年代久而兵燹厄之, 此篇之遺存於子姓者, 不過於一、二家也. 如今世末, 或有人事之變遷, 則能不爲名山之藏耶. 不肖是以懼焉, 與族孫東鑄, 詢議於門中者, 至於屢次矣. 辦得如干金匱, 而付於手民, 俾圖廣布. 『소쇄원사실』 양만환 발문

9) 이 석인본은 한국가사문학관에도 박준규 교수 기증본으로 소장되어 있고, 연구자들 사이에 이미 복사본으로 유통되어져 있다.

10) 필자의 논문 「『소쇄원사실』에 실린 인재 양진태의 漢詩 고찰」 119쪽에서도 잘못 적어 놓았다. 그리고 1963년에 석인본을 간행한 양만환 선생의 손자 양길호 선생이 현재 소쇄원 문중 총무로서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소쇄원 주인공들의 관련 작품인데, 당시에 직접 『소쇄원사실』을 편찬하던 당사자들이어서, 서두의 목록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이처럼 고암은 소쇄공 양산보와 함께 소쇄원의 정신적 지주로서 후손들에게 남아 있었다. 그 사실은 여러 면에서 알 수 있는데, 그 한 예로 『소쇄원사실』에 실려 있는 ‘고암유적도’를 만들려고 준비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인재 양진태는 선조인 소쇄공 양산보와 그의 아들 고암 양자정을 소쇄원의 두 상징적인 인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瀟灑公 遺蹟十圖」와 「鼓巖公 遺蹟十圖」를 제작하려고 준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소쇄원사실』 권13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이 「고암공 유적십도」는 ‘5세에 벽옹擗踊¹¹⁾하다/五歲擗踊’부터, ‘사문에서 벼루를 받다/師門受硯’에 이르기까지 열 가지 고암의 유적을 5언절구의 시로 지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제가 ‘십도十圖’라는 말이 있고, 또 이 시들의 뒤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서, 이는 열 폭의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¹²⁾

소쇄공과 고암공 두 분의 열 가지 행적을 본떠서 열 개의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시를 얻어서 그림 위에 쓰려고 하면서, 김농암·삼연·석양정 삼형제 세 사문斯文에 대한 글을 읊조려 올렸다. / 兩世十蹟, 擬作十圖, 要得試筆于圖上. 吟呈金農巖·三淵·夕涼亭 仲叔季 三斯文.

석양의 그림과 벽계藥溪의 시에¹³⁾

夕涼之畫藥溪詩

- 11) 벽옹擗踊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른다는 뜻이다. 고암이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어린 나이에도 슬퍼했다는 내용이다.
- 12) 이 내용들은 필자의 앞의 논문 「『瀟灑園事實』에 실린 인재 양진태의 漢詩 고찰」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124쪽~127쪽.
- 13) 벽계藥溪는 오늘날 경기도 양평군의 벽계구곡 인근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이곳에 은거했던 삼연 김창흡을 가리키고 있다. 김창흡은 이곳에 지내면서 오언율시 「벽계잡영藥溪雜詠」 8수를 읊은 것이 『삼연집三淵集』 권5에 실려 있다. 그와 소쇄원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였는데, 삼연이 소쇄원에 와서 머물며 지은 시들이 상당 수 남아 있다.

겸하여 농암의 기이한 필법

兼要農巖筆法奇

만약 삼절의 세 사람에게 얻는다면

三絕倘從三子得

참으로 영원한 가문의 보물로 전하리

珍藏永作世傳寶¹⁴⁾

이처럼 후손들은 고암의 사적을 열 가지로 정리하여 시를 남겼고, 또한 이를 열 폭의 그림으로 그려서 남기려고 하였다. 현재 그 그림은 그려졌다는 정확한 기록이 없고, 또 남아 있지도 않기에, 다만 계획으로만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고암은 소쇄원의 후손들에게 소쇄공 양산보와 함께 정신적인 두 지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고암 양자정은 김인후에게 학문 수업을 받았고, 커서는 그의 사위가 되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위치를 잘 알려주는 일이다. 하서가 순창의 점암촌에 살 때는 그를 모시면서 학문을 익혔다. 그는 1570년 효행으로 벼슬에 나아가서, 거창현감과 석성현감을 지냈다. 그러나 석성현감에 재직 중 1591년 신묘사화가 일어났고, 여기서 두 아들 양천경과 양천회가 희생되었다. 이에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인사를 끊고 은거하게 되었다.

그 후에 이 두 아들에 대하여 金大器가 올린 「伸冤上疏文」이 있는데, 특히 김대기는 고암 선생의 사우 세우기를 청하는 글 「請立鼓巖先生祠宇書」에 27인의 상소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 조헌(趙憲, 1544~1592)이 쓴 「祭文」이 남아 있고, 별도로 고암에게 보낸 그의 편지도 남아 있다. 조헌은 두 아들의 스승이기도 하였다.¹⁵⁾

현재 고암 양자정의 전기자료는 『소쇄원사실』 권6에 모두 실려 있다. 여기에는 먼저 趙希逸이 쓴 「묘갈명(1635)」이 있는데,¹⁶⁾ 그 명은 다음처럼 시작하

14) 『소쇄원사실』 권13에 실린 인제 양진태의 글이다.

15) 고암의 생애 부분은 권수용의 저서에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다. 권수용, 앞의 책, 39쪽~47쪽에 그의 대략적인 삶이 소개되어 있다. 이하 글은 그 글을 주로 인용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덧붙였다.

16) 조희일(趙希逸, 1575~1638)의 자는 이숙(怡叔)이고 호는 죽음(竹陰)·팔봉(八峰)이며 본관은 임천이다. 1601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다시 1608년 문과 증시에서도 급제했다. 광주목사를 비롯해 형조참판, 경상감사 등을 지냈다. 저술로 『죽음집』

고 있다.

시와 예의 가르침	詩禮之訓
이정鯉庭의 가르침 이은 것이요	鯉庭之承
스승과 벗의 도움으로	師友之益
용문에 올랐어라	龍門之登

이정鯉庭의 가르침이란 물론 부친 소쇄공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이다. 공자의 학문을 이었다는 숨은 뜻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林檎가 쓴 「묘지명(1595)」이 있다.¹⁷⁾ 이어서 장편의 우암 송시열이 쓴 「행장(1685)」이 실려 있다. 이 「행장」은 매우 긴 장편으로, 여기에는 고암의 일대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우암은 이 글에서 인재 양진태가 자신을 찾아와서 부탁한 것이라고 「행장」에 적어 두었다.

그리고 이어서 임전(任鉉, 1560~1611)의 「祭文(1596)」이 실려 있다. 『소쇄원사실』 권6에는 이처럼 고암 관련 전기자료들이 여러 편 실려 있으며, 이를 이어서 고암에 대한 만장이 또한 여러 편 실려 있다. 만장은 김성원金成遠, 김언옥金彦勗, 조언형曹彦亨, 김영휘金永暉, 정명호鄭鳴濩, 그리고 고암의 사위인 오금吳崱의 만장이 이어져 있다.

이런 글들은 모두 『소쇄원사실』 권6에 실려 있는데, 이 글을 통하여 그의 일생을 알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된다. 고암은 또 이황李滉·이이李珣·성혼成渾·조현趙憲 등 당대 유명한 학자들과 함께 학문을 강마하였다는 기록이 이들 전기자료 안에 실려서 알려져 있다.

고암은 나중에 정조 丙午年(1786)에 필암서원에 배향되었다. 이는 하서 김

陰集』·『경사질의經史質疑』 등이 있다. 조희일은 양천운과 함께 동문수학한 사이로 조씨 집안과 양씨 집안의 교유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시작되어 후대로까지 이어졌다.

17) 임회(林檎, 1562~1624)의 자는 공직公直이고 호는 관해觀海이며 본관은 평택平澤이다. 선조 34년(1611) 문과에 급제해서 성균관 전직을 거쳐 인조반정 이후 광주목사廣州牧使가 되었고, 이괄李适의 난 때 반군에 사로잡혀 전사하였다.

인후의嫡傳者였기 때문이다. 고암을 필암서원에 배향해줄 것을 청한 상소는 여러 번에 걸쳐 올려졌다. 그런 기록들도 다 『소쇄원사실』에 남아 있다. 그가 김인후의 학통을 잇고 있는 적전자라는 사실은 다들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료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이 남아 있다. 「하서선생이 주신 벼루에 기록하다/河西先生所贈硯識」라는 글이다.

이 벼루는 나의 스승인 하서 부자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평생을 보은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중히 간직해왔다. 하루는 일제 이항선생께서 보시고는 부러워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이 벼루는 단순한 벼루가 아니다. 바로 衣鉢의 전수이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벼루를 衣鉢 傳授에 비유함은 내 감히 감당할 수 없으나, 잘 간직하라는 경계는 어찌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침내 이것을 기록한다. 이 벼루들은 단주 영양에서 나는 좋은 상품이다. 따뜻하여 먹이 흘러내리지 않고, 매끄러워 먹이 엉기지도 않는다. 벼루 등줄기에 다음과 같이 銘文을 새겼다. ‘푸른 물의 뼈, 자주 빛 구름의 뿌리, 구슬처럼 매끄럽고, 옥처럼 따뜻하다네.’ 1570년 2월¹⁸⁾

위 문장은 현재 『소쇄원사실』에는 실려 있지 않고, 『河西先生續集』에서만 볼 수 있는 글이다. 이를 통해보면, 『소쇄원사실』이 편찬될 당시에는 이 글의 존재를 잘 몰랐다는 것이다. 아마 후대에 하서의 문중에서 『하서선생속집』을 만들 때 발견되어서 편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¹⁹⁾ 이를 보면 하서가 고암에게 벼루를 준 사실이 있으며, 고암은 이것을 평생 보배로 간직하고 살았음을 잘 알 수 있다. 물론 ‘사문에서 벼루를 받다/師門受硯’라는 「鼓巖公 遺蹟十圖」 가운데 한 수의 시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미 그런 사실은 알려져 있었을 것

18) 『하서선생속집』『附錄』『河西先生所贈硯識』(梁子澂 鼓巖, 此硯, 吾師河西金夫子嘉惠於小子者也. 以寓平生報佛之慕, 而珍藏矣. 一日, 一齋李先生見而艷之曰, 斯硯也, 非硯是鉢也. 夫念之哉, 傳鉢之諭, 余不敢承當, 而愛護之戒, 何不奉承耶, 遂爲之識. 此石端州羚羊佳品, 溫不流墨, 滑不滯墨, 硯背有銘曰, ‘碧水之骨 紫雲之根 如珠之潤 如玉之溫’ 正統 庚午 仲春.

19) 이 『河西先生續集』은 상하 2책의 목판본으로 1940년에 간행된 책이다. 연화자본 1책은 1916년 간행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좀 더 서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다.

현재 하서가 사위인 고암에게 지어준 시가 50여 수 정도 된다. 이중 많은 시는 『소쇄원사실』 권7에 고암공의 부록으로 실려 있다. 이를 보면 하서가 고암을 사위이자 제자로 얼마나 아끼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고암 또한 많은 시를 지어서, 하서 선생에게 올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소쇄공 양산보의 유고와 함께 정유재란 때 모두 불에 타 없어졌다. 소쇄원의 두 정신적인 지주이자, 명현인 소쇄공과 고암공의 문고가 사라졌다는 것은 소쇄원 원림문학으로는 참으로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이다.

남아 있는 고암의 전기자료를 보면 특별히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다. 「행장」에 보면 거창현감으로 나갈 때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임금의 물음에 교육을 일으키겠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 말은 그의 전기자료 여러 곳에 실려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 있다. 또 고암은 ‘昌平學求堂’²⁰⁾을 환학당 조여심曹汝諱 등과 함께 열어서 창평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담양과 창평 지역에서는 영산강을 사이에 두고, 수남학구당, 수북학구당을 만들어서 교육에 힘썼다는 것은 현재도 담양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이처럼 담양, 창평 고을에 인재가 많이 난다는 명성을 얻게 된 데에는 바로 이러한 교육을 중시하는 역할들이 예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고암이 석성현감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두문하고 은거하고 있을 때 마침 임진왜란을 당하게 되었다. 고암은 하나 남은 아들 양천운千運을 고경명 휘하에 보내면서 전쟁물자도 함께 보냈다고 한다. 실은 고경명이 의병을 일으키도록 고암이 권하였다는 기록도 전기자료들에 남아 있다. 고암은 당시 자신은 늙고 병들어서 대신 아들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계문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계문은 완전한 문장이 남아 있지 않고, 그 부분적인 내용으로만 남아 있는

20) 창평학구당은 ‘수남학구당’이라고도 하는데, 1570년 10월 10일에 첫 모임을 시작하여 현재 까지도 부분적으로 그 명맥이 이어져오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처음에는 25개 성씨가 주축이 되어서 설립하였는데, 지금은 18개 성씨가 관리하고 있다. 이곳의 당안에 오른 인물은 초기 약 200년 동안에 750여명이나 되며, 생원과 진사에 오른 인물은 54명이고, 대과에 급제한 이는 16명이나 된다고 한다.

데, 『소쇄원사실』의 곳곳에 이 대목이 들어가 있다. 그는 사화에 아들을 둘이나 희생당한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처지에 국가가 위난에 처하자 마지막 남은 아들을 전장에 내보내며 나라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였다. 당시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2년이 지난 갑오년 1594년 12월 22일 고암은 향년 72세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이 임박해서 다른 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선조의 제사만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라고 했을 뿐이었다고 『행장』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의 묘소는 무등산 중산동中山洞 신좌辛坐의 언덕에 있다.

3. 고암 양자정의 문학 작품

현재 고암에 대하여 남아있는 자료는 앞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소쇄원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앞서 말하였듯이 석인본 『소쇄원사실』은 모두 3책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2책의 대부분 권5부터 권8까지가 고암 관련 글이다. 여기에는 고암의 운문과 산문 여러 편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지어 고암에게 보낸 많은 작품들이 실려 있다.

이처럼 4권이나 고암 관련 작품이 실려 있다는 점으로도 소쇄원에서 고암의 위치가 어떠하였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소쇄원사실』은 소쇄공이나 고암공의 관련 작품들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출발을 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여기에서는 고암의 작품들을 먼저 고암의 운문, 이어서 고암의 산문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고암의 운문

먼저 고암의 운문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고암은 『소쇄원사실』에 실린 모

두 열 수의 운문 작품을 남기고 있다. 가장 먼저 그의 「잠부자가/岑夫子歌」를 들 수 있다. 이 「잠부자가」는 원래 하서의 원운 시가 있었다. 『하서전집』에는 ‘무신년(1548년) 봄에 선생이 옥천玉川(전북 순창) 점암촌鮎巖村에서 잠시 사셨다. 이 때 물가에서 잠나무 등걸 하나를 얻었는데 몹시 기이하여 ‘잠부자’란 이름을 붙여 재미삼아 노래를 지었다. 물푸레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수청목水靑木’으로, 의서醫書에 보이는 ‘진秦’이 이것이다.’라는 주가 붙어 있다.²¹⁾

물푸레나무를 수청목(水靑木)이라고 부르는 건, 나무를 물에 넣으면 물이 푸른색으로 변한다고 하여 이름 붙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잠부자’라는 말은 이백의 시 「將進酒」에 나오는 아주 익숙한 말이다. 그 6번째 행에 ‘岑夫子, 丹丘生’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岑夫子는 이백의 친구인 隱士 잠훈岑勛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 밖에 다른 의미도 있다.²²⁾ 물푸레나무는 한자로는 심목(棼木)이라고 하였는데, 하서가 이를 ‘잠부자岑夫子’라는 말로 의인화시킨 것이다.

흔히 물푸레나무는 가볍지만 단단하여 지팡이를 만드는 데 잘 쓰이는 것이다. 하서는 물푸레나무 등걸을 구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지팡이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뜻이 연상되는 ‘잠부자岑夫子’라는 이름을 붙이고 노래를 지었던 게 아닐까 추측이 된다. 이 물푸레나무 등걸을 하서 선생이 지팡이로 사용하였다는 후대의 기록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²³⁾ 사실 지팡이로 사용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이를 고암도 이어 받아서 잠부자라고 부르면서 「잠부자가」라는 차운시를 남긴다. 이 고암의 「잠부자가」는 모두 27구로 되어 있다.²⁴⁾ 그 첫 대목은 다음과 같다.

21) (嘉靖)戊申春, 先生避寓, 玉川之鮎巖村. 得棼植於磯頭, 甚奇古, 仍以岑夫子目之, 作歌以戲之. 棼俗所謂水靑木, 卽醫書之秦, 是也.

22) 이와 별도로 당나라 시인 잠삼(岑參, 약715~770)을 가리켜서 ‘잠부자’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소호당 김택영의 시구에도 ‘미피에서 지극히 즐거웠던 잠부자 같고/漢殿樂極岑夫子’라는 표현도 있다.

23) 『頤齋遺藁』 권2에 ‘昔嘉靖戊申, 河西先生在玉川邸舍. 偶得磯頭棼查爲杖, 借號岑夫子而歌之’라는 기록이 있다.

24) 「잠부자가岑夫子歌」, 삼가 하서선생 운에 이어서/ 敬次河西先生韻 『소쇄원사실』 권5

잠부자岑夫子여 천성이 어찌 그리 사나운가	岑夫子天性何苟猛
진秦나라를 도와 학살하였으니 성은 진씨	助秦爲虐仍姓秦
생령生靈을 매질하여 박살내고 위협하니	鞭扑生靈威不已
동남동녀가 임금을 피해 봉영蓬瀛으로 달아났네 ²⁵⁾	童男女避君走蓬瀛

물푸레나무는 나무껍질을 진피(秦皮)라 하며 약용한다. 그래서 그의 성을 진씨라고 한 것이다. 진씨 성을 가지고 진나라를 도와서 학정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 형상이나 모습을 설명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물에 잠기고 모래에 뜬겨 골격은 기이한데	水浸沙齧骨格奇
무리와 홀로 떨어졌으니 누가 형이고 아우리오	絕類離羣誰弟兄
술개 웅크린 듯 거북이 춤추는 듯 꼭두각시 모습일세	鴟蹲鰲抃傀儡形
변화한 모습 신비한 정신 형체 자못 정치해라	幻化神怪頗能精

물푸레나무는 그 모습이 기이하고, 자라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특별하다는 것을 읊었다. 이 시의 마지막 네 구에서 하서선생은 한나라의 신하가 아니지만, 진씨 성을 가진 물푸레나무 종적을 살펴보았다고 하였다.

하서선생 얻은 것을 기뻐하여	河西先生欣得之
손대어 만지니 쟁그랑 하고 천기 울리듯	手弄鏗然天機鳴
선생은 한나라 신하가 아니지만	先生不是漢庭臣
넘실대는 파도에 종적을 숨기지 말게나	慎勿疑已遁蹤跡長泛波聲鄰

긴 물결은 순창 점암의 물줄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처럼 물푸레나무를 잠부자라고 의인화 하여, 한 편의 시로 만들었다. 일찍이 소쇄옹의 「효부」를 하서가 이어 받아서 「효부」를 짓듯이, 하서의 「잠부자가」를 고암이 다시 이어 받

25) 봉영蓬瀛은 봉래산蓬萊山과 영주산瀛州山을 말한다. 중국의 전설 속의 산으로 방장산方丈山과 함께 3신산으로 부르는데, 그곳에 선인仙人이 살며 불사不死의 영약靈藥이 있다고 한다.

아서 「잠부자가」를 지었다. 대를 이어서 주고받는 아름다운 차운들이 매우 특별하다고 하겠다. 마지막 구절 ‘넘실대는 파도에 종적을 숨기지 말게나’라는 표현은 하서의 원운 마지막 구절 ‘넘실대는 만길 파도인들 그대를 띄우리.’라는 시구와 대를 표현하여 쓴 말이다.

다음으로 「점암연구/點巖聯句」가 있다. 고암이 하서와 함께 점암에서 지내면서 연구로 지은 시이다.

지팡이 짚고 청산에 들어가니 녹수 굽이져	杖入青山綠水隈 河西
향기에 이끌려오니 고원의 매화라네	尋香却是故園梅 鼓巖
뿌리 옮기고 처마 밑 창틈을 보니	移根默對軒窓際 河西
세상사 어찌 취한 마음 어지럽히리	萬事何曾攪醉懷 鼓巖

점암 바위 밑에는 물고기가 뛰놀고	點巖巖下漁爭隈 鼓巖
점암 바위 위에는 매화 생각하는 사람	點巖巖上人思梅 鼓巖
매화는 보이지 않고 수심만 가득한데	思梅不見正愁絕 鼓巖
계산溪山에 홀로 서니 구름만 쌓여가네	獨立溪山雲萬堆 河西

점암은 깊은 산촌이지만, 물길이 있고 넓은 바위들이 있다. 그 곳에서 하서와 고암은 생활하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다.²⁶⁾ 다음으로 「소쇄원」이라는 고암의 시이다.²⁷⁾

쓸쓸한 산 비 내려 계곡을 맑게 하니	蕭蕭山雨灑溪心
거문고 튕기는 소리 천천히 들리는 듯	琴上煩絃緩緩音
천년의 감당나무를 그 누가 다시 볼까	千載甘棠誰復見
작은 동산에서 옛 사람 그리워한다네	小園令得古人襟

26) 그 점암 유적을 현재 순창군에서 ‘훈몽재’라는 학당으로 만들어 놓았다.

27) 여기는 ‘감사監司 윤인서에게 이어 드리다/次呈尹監司仁恕’라는 주가 붙어 있다.

소쇄원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는 것은 이미 「소쇄원48영」에도 나와 있다. 아마 소쇄원의 주요한 음악이었던 것 같다. 감당나무는 형제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말이거나, 훌륭한 목민관의 자취를 말하는 것으로 『시경』에 나온다. 다음에는 1568년에 지은 「하서선생 행장 뒤에 쓰다/河西先生行狀後」라는 오언율시 세 수의 작품을 남긴다. 그 마지막 세 번 째 수이다.

병든 몸 맡기려고 귀래부歸來賦를 지었서	謾賦歸來任病身
경륜과 사업에 뜻을 펴기만 하리	經綸事業肯求伸
시로 울렸다고 어찌 시객詩客이라 이름하리	鳴詩豈是攻詩客
술에 붙인 것이지 술 즐기는 사람이라	寓酒非眞嗜酒人
어진 사람 좋아하길 미색보다 좋아했고	共說好賢如好色
도를 근심했지 가난은 근심하지 않았다고	從知憂道不憂貧
천명天命을 즐기다가 홀연히 떠나시니	樂奉天命聊乘化
만고에 속절없이 오류五柳 ²⁸⁾ 의 봄만 남았구나	萬古空留五柳春 ²⁹⁾

이 시는 고암이 하서의 행장을 짓고서, 이어서 짓는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말은 우암 송시열의 고암 「행장」에도 나오는 말이다. 우암은 그 안에 고암의 이 시 세 수를 실어 놓았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우암은 이 세 수의 시를 절구로 選錄하여 두었다.

또 고암은 소쇄원에서 나귀를 길렀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편의 시를 남겼다. 바로 「죽은 나귀를 탄식함/嘆斃驢」이라는 시이다. 당시 16세기에는 집에서 어떤 가축을 길렀는가 보여주는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나귀를 탄다고 하여 「기려騎驢」라는 말은 많은 시구에 나오는 말이지만, 집에서 직접 나귀를

28)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뜰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고 「五柳先生傳」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깨끗함을 일러 오류선생이라고 불렀다.

29) 이 시의 마지막에는 ‘용경隆慶 2년 무진戊辰(1568년) 2월 상순에 양모梁某가 삼가 천관산 천관사 보현암에서 쓰다/ 隆慶二年戊辰四陽之月上弦, 梁某謹書于天冠山天冠寺之普賢菴’라는 주가 붙어 있다. 「행장」을 짓고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하였는데, 아마 「행장」을 장흥 천관산에 가서 지었을 수 있다고 보인다.

길렀다는 자료는 드문 것 같다. 17세기에 고산 윤선도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 가운데 집안에서 말을 길러서 상인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경계의 편지를 보낸 일이 있다. 그런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조선 중기에는 호남지방에도 말이나 나귀 등을 기르는 일이 어느 정도 성행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16세기 말경에 이렇게 집에서 기르던 나귀가 죽었다는 시를 남긴 것으로도 무척 흥미 있는 자료가 되는 작품이다.

슬프구나, 기방冀方에서 온 당나귀야	嗟爾驢乎自冀方
소와 양과 다르게 크게 울고 잘 달렸지	宏鳴善走異牛羊
어젯밤 슬픈 소리 깜짝 놀랐는데	曾驚昨夜哀聲斷
오늘 아침 갑자기 죽었음을 알았구나	忽報今朝病斃亡
털이 얇아 마구간이 추워 얼어 죽었느냐	毛薄廐寒凝凍死
콩이 모자라 구유 비어서 배고파 죽었느냐	豆稀槽冷慮飢傷
주인의 마음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서	主人心事頗無賴
다만 사내종에게 미친 듯 화만 내는구나	空向蒼頭怒欲狂

기방冀方은 중국 북쪽 기주冀州 지방을 가리키는데, 명마名馬의 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아마 나귀는 북에서 들여와서 널리 기르던 가축이었을 것이다. 고암은 마지막으로 기행시라고 할 수 있는 「부여를 회고하며/扶餘懷古」라는 시제 아래 「白馬江」과 「落花巖」 2수가 남아 있다. 고암은 일찍이 석성현감(石城縣監)을 역임하였다. 석성은 현재 충남 부여군 석성면 지역이다. 따라서 당시에 부여의 백마강과 낙화암을 읊은 두 수의 한시를 남긴 것이다. 먼저 그의 「백마강/白馬江」 시이다.

단풍과 국화 무성한 늦가을	楓菊三秋後
강산은 백 번이나 전쟁터였지	江山百戰餘
그대여 흥망일랑 묻지를 마오	興亡君莫問
천지는 차고 기우는 것이려니	天地有盈虛

이는 백마강의 가을을 읊은 시이다. 옛날 전쟁터였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인간 세상의 흥망성쇠를 묻지 말라고 하였다. 천지가 차고 기우는 것처럼, 사람의 삶도 차고 기우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오언 절구의 짧은 시이지만 매우 감동적인 명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그의 「낙화암/洛花巖」 시이다.

말로만 듣던 낙화암	聞說落花巖
봄바람에 꽃은 다 떨어져	春風花落盡
누가 알리 붉은 꽃 몇 송이	誰知數朵紅
아직도 바위에 피어 있는 걸	尙爾依巖畔

낙화암은 예로부터 삼천궁녀가 떨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 유명한 사적을 이처럼 아름답게 읊은 것이다. 마지막 구는 붉은 꽃 몇 송이가 실제로 바위에 남아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는 역사적으로 떨어졌던 그 궁녀, 그 꽃이 아직도 바위에 그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중의적인 표현으로 무척이나 재미있다.

현재 고암은 이처럼 모두 열 수의 시가 남아 있다. 남아 있는 시가 매우 적지만, 그 한 수 한 수가 무척 의미 있고 흥미로운 시들이다. 이 가운데 하서 선생과 관련이 있는 시는 절반이 넘는 여섯 수이다. 맨 처음 「잠부자가」와 「점암연구」 두 수는 순창의 점암에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하서의 행장을 짓고 나서, 감회에 따른 세 수의 시가 이어져 있다. 장인이자 큰 학자였던 하서에 대한 존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이처럼 여섯 수나 하서 선생과 연관된 작품들이 남아 있어서, 이런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 밖의 시들도 한 수 한 수가 다 의미 있는 작품들이다. 그의 소쇄원 시, 그리고 소쇄원에서 길렀을 나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시, 부여에 가서 백마강과 낙화암을 읊은 시들까지 모두 다 그 시적인 의미가 아주 큰 작품들이다. 그의 시적 다양성과 서정성의 깊이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 고암의 산문

다음으로 고암의 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의 산문으로는 먼저 「하서 김인후 행장」이 있다. 하서의 행장은 하서의 운명 후 1561년 고암에 의하여 처음으로 지어졌다. 우암 송시열의 행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신년 하서가 세상을 떠났다. 송강 정철 같은 동문의 여러 사람들이 「행장」을 지을 것을 의논하면서 모두 공을 추천하였다.³⁰⁾

고암은 송강보다 십여 년이나 위였다. 따라서 당시 고암이야말로 하서의 적전자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나중에 이 고암 행장을 바탕으로 백년이 지난 후 1672년에 박세채에 의하여 하서의 행장이 다시 지어졌다. 하서의 문집이 편집될 때, 고암의 이 글은 「家狀」으로 만들어져서, 『하서전집』에 편입이 되었다.

『하서전집』에 실린 박세채의 「행장」에는 고암의 「가장」을 저본으로 하여 만들었다고 기록하여 두었다. 하서의 전기자료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글을 바로 고암이 엮었음을 알려주는 말이다.³¹⁾

다음으로 고암의 산문에 「기우제문」이 한 편 남아 있다. 이 「기우제문」은 융경제 기원이라 하였으니, 목종의 재위연간 1567년부터 1572년 사이에 지어진 무등산 「기우제문」으로 추정된다. 무등산 「기우제문」은 현재 서너 편이 남아 있다. 가장 이른 시기로 보이는 것은 광주목사를 하였던 해봉海峯 홍명원(洪命元, 1573~1623)의 「무등산기우제문(無等山祈雨祭文)」이다. 이 제문을 비롯하여, 1647년(인조25) 5월에는 광주목사 신익전申翊全의 「기우제문」, 1677년에는 광주목사 이민서도 기우제를 지내고 「무등산기우제문」을 남기고 있다. 그 이후에도 전라감사 박우원이나 전라감사 정범조 등이 무등산에서 기우제를

30) 송시열 찬, 「고암 행장」, 『소쇄원사실』 권6.

31) 先生既歿, 梁公子澂, 二三同志, 撰成行實, 以壽諸梓, 所爲尊美者, 甚至. 今先生曾孫亨祉, 以其紀述不簡, 事蹟頗漏, 乃越千里而至, 請改其藁, 以爲將來顯刻之資. 世采屢以固陋辭, 而屬之益勤, 肆敢不揆.....崇禎壬子十月日, 潘南朴世采, 謹狀. 「행장」, 『하서전집』

지냈던 기록이 남아있다.³²⁾ 고암의 이 「무등산 기우제문」은 가장 이른 시기의 무등산 기우제문으로 추정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쪽에 아름다운 태산이 솟아 있어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려 만물을 운택하게 하니 누가 그 일을 주관하는가? 신神께서 하시는 일은 그 변화를 추측하기 어려워서 혹자는 맑다 하고 혹자는 흐리다 하니 일찍이 알 수 없도다. 천자께서 즉위하시니 기원은 용경隆慶(명나라 목종 때의 연호)이라. 만물이 다 우러러보고 서로 즐겁게 사귀는데 어찌 오래도록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한창 자라야 할 때에 산천초목이 시들고 논밭에는 먼지만 풀풀 나니 곡식이 말라죽고 과실이 시들어 해만 뜨면 걱정이 쌓이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오직 지성이면 금석金石도 꿰뚫을 수 있다 하였기에 서숙쌀, 고기, 폐백 등 제수를 마련하여 잔을 올리니 흠향하시어 단비를 흠뻑 내려주십시오.³³⁾

무등산은 소쇄원에서 보면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높은 산이다. 소쇄원 근처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산이다. 이 작품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무등산의 첫 번째 기우제문이라면, 그 자료적 가치는 매우 높을 것이다. 고암은 1523년생으로 그의 나이 40대 중후반 무렵에 이 작품을 지어서, 무등산에 기우제를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산문인 짧은 「계문(啓文)」이 한 편 있다. 「의장 고경명과 김천일에게 글을 주다[啓高義將敬命金義將千鑑]」라는 계문이다. 계문은 원래 임금에게 상奏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여기서는 두 의장義將에게 알린다는 내용이다.

땅은 넓고 하늘은 거칠어 뜻밖에 임금이 피난하는 옥을 당하였습니다. 산은 멀고 물은 깊어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만 다함이 없습니다. 아, 어디로 돌아갈까

32)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 편, 『무등산 국립공원 문화자원』, 2020.

33) 南紀有山 華岱同崇 興雲吐雨 澤物委功 誰其尸只 神變莫測 曰暘曰陰 曾不潛伏 天子卽位 隆慶紀元 萬物咸覩 庶類交欣 云何旱魃 當此長養 山嶽翠乾 草木奚暢 阡陌塵飛 稼穡卒痒 杲杲出日 我心憂傷 惟誠之至 可通金石 敬恭神明 自古在昔 黍稷特幣 豈惟其物 庶賜散假 貽我清澤, 『소쇄원사실』 권5.

요, 신의 마음 아픔이며, 마땅히 부자父子가 한 마음으로 충성하듯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협력할 것입니다. (위와 아래에 아마 글이 빠진 것 같다)³⁴⁾

이처럼 이 글은 의병으로 나가는 고경명과 김천일의 소식을 듣고서, 그들에게 보내는 계문이다. 이 글은 우암이 지은 「행장」 등 그의 전기자료 여러 곳에 실려 있다. 현재 고암의 산문은 이처럼 단 세 편만 남아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서에 대한 「행장」이나 「무등산 기우제문」이 남아 있다는 점, 임란을 당하여 「계문」을 남기고 있다는 점 등 그 자료적인 가치가 무척 높은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4. 고암의 문학 세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고암의 작품은 한시 작품이 모두 열 수가 남아 있고, 산문은 세 편이 남아 있다. 앞서도 말하였지만, 그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병화에 소실되어 사라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남아있는 작품들이 한시에서는 여섯 수나 하서와 관련된 작품이고, 산문으로는 하서에 대한 「행장」이 남아 있다는 것은 하서와의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작품들이 하서와 연관이 있는 것은, 또 아마 고암 작품의 원고들이 하서의 집안에 남아 있던 것을 나중에 수습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남아있는 문학작품은 한 편 한 편이 모두 다 큰 의미가 있다. 고암의 전체 작품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흩어진 일부 작품을 수습한 까닭에 어느 분야에 많은 작품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은 작품이지만 여러 분야의 작품이 남은 것을 보면, 원래 고암의 문학 작품은 매우 다양하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34) 「啓高義將敬命金義將千鎰, 地老天荒 貽動駕不虞之辱 山長水遠 抱戀主無窮之懷 嗚呼易歸 余心之慟 當父子同衷 幽明協力 (上下恐缺)」

그의 시 「잠부자가」를 보아도,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던 물푸레나무를 하서에 이어서 문학 작품으로 남겼다. 둘이서 원운과 차운으로 남긴 유일한 작품으로 보인다. 이처럼 ‘물푸레나무[岑木]’를 읊거나, 나귀의 죽음을 읊는 등 영물시적인 면이 주목된다. 식물로 물푸레나무, 동물로 나귀를 읊은 시가 남아 있는 것은 동식물을 시적인 주제로 삼았다는 데서, 그의 생활시적인 면모가 보인다. 전통적인 사군자를 읊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 시들에서처럼 무척 실용적인 작품 세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점암이나 소쇄원을 읊는 산수 전원시도 있었다. 특히 그의 「소쇄원」시는 소쇄공의 소쇄원 시가 남아 있지 않기에, 소쇄원 주인 가운데는 가장 먼저 지어진 시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다. 또 하서의 「행장」을 짓고 나서 지은 작품으로 여겨지는 시들도 무척 중요한 시들이다. 이처럼 하서의 삶을 총괄하여 읊는 시가 있다는 것은 그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그의 시 가운데 역사 유적을 그리면서 무척 서정적인 감정을 이입한 시들이 있어서 흥미롭다. 바로 백마강이나 낙화암을 읊은 기행시들이다. 고암은 자연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그 아름다움을 서정적으로 잘 표현하는 작품세계를 이루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적은 분량의 시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한시 작품이 남아 있다는 것은, 원래 고암의 시가 무척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산문에서도 기록문학으로서의 하서 「행장」을 처음으로 지은 것은 앞서도 말하였지만 무척 의미 있는 일이다. 하서의 적전 제자로서 인정을 받고 확인을 받는 일이었다. 그 밖에 「무등산 기우제문」이나, 임란을 당하여 「계문」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도 그의 문학이 다양하게 폭넓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글들이다. 비록 적은 수의 작품이 남아 있지만, 그의 문학이 다양한 주제로 전개되고 있었음을 유추하여 볼 수가 있다. 그 문학의 성격도 다양성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서정적인 시적 묘사도 탁월한 작품들이 많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5. 맺음말

이 논문은 고암 양자징의 문학에 대하여 처음으로 살펴 본 것이다. 소쇄원은 조선 중기 대표적인 원림이자, 창건 이후부터 많은 문학 작품이 창작되어진 문학의 공간이었다. 소쇄원 원림의 조영자였던 소쇄공 양산보 이하 거의 10대에 걸친 후손들에 의하여 작품들이 남아 있는 역사공간이자 문학공간이 되었다. 그리하여 ‘소쇄원 원림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다. 호남에는 여러 원림이 있었지만, 이처럼 오랜 기간에 대를 이어서 원림이 조영되면서 문학 활동이 이루어진 예가 흔하지 않다.

그 소쇄원에는 정신적인 지주였던 소쇄공 양산보와 또 다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였던 고암 양자징이 있었던 것이다. 앞서 말한 바처럼 고암은 많은 문학 작품들이 다 소실되어서 전하지 않고 있지만, 『소쇄원사실』에 실려 있는 그의 몇몇 문학 작품으로도 그가 다양한 문학 활동을 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작품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다양한 작품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몇 수가 남아 있는 그의 절구 시들을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정적으로 묘사하는 탁월한 시경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의 스승이자 장인인 하서와 수많은 시들을 주고받았던 것 같다. 16세기 소쇄원 원림문학의 큰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16세기 호남 문학이 번성하도록 스승인 하서나 석천, 제봉, 송강, 서하, 옥봉 등과 함께 큰 역할을 하였던 것 같다.³⁵⁾ 고암이 운명하자, 고암이 장인인 하서에게 많은 글을 바쳤던 것처럼, 고암의 사위 오급吳岾도 장인의 운명을 당하여 다음과 같은 만장을 짓는다. 그 일부분인데 봄의 향기, 가을의 달과 같은 그의 인격을 기리고 있었다.

35) 하서가 사위인 고암에게 준 시들은 『소쇄원사실』 권7에 정리되어 실려 있다. 또 이곳에는 여러 시인들이 고암에게 지어 준 시들이 실려 있어서 그 교유의 일단을 알 수가 있다.

마음은 항상 조심스레 가다듬고	翼翼心常小
넓고 넓은 뜻은 편벽함이 없었네	恢恢意不偏
가을 달을 흠쳐온 듯 맑은 흥금에	清襟奪秋月
화기는 봄 향기처럼 널리 퍼졌네	和氣蕩春荂 ³⁶⁾

이 글에서는 남아 있는 고암의 작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그의 문학을 살펴 보았다. 앞으로도 소쇄원 주인공들의 문학 활동이 좀 더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소쇄원 원림문학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를 바란다.

36) 『소쇄원사실』 권6.

참고문헌

- 『方菴遺稿』, 향토문화연구자료 11집, 전라남도, 1987.
- 『瀟灑園事實』, 중간 석인본, 1963.
- 『河西全集』, 한국문집총간 33집. 한국고전번역원.
- 권수용,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활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 ,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활동 연구』, 경인문화사, 2009.
- 김대현 외, 『호남누정기초목록』, 호남지방문화연구원, 2015.
- 김대현, 「방암 양경지의 ‘소쇄원 30영’ 연구」, 『한국언어문학』 45집, 2000.
- , 「『瀟灑園事實』에 실린 인재 양진태의 漢詩 고찰」, 『한국시가문화연구』 44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9.
-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다할 미디어, 2007.
-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 편, 『무등산 국립공원 문화자원』, 2020
- 이향준, 『소쇄원사실』 불완전하게 열린 책, 학술행사 발표집, 2018.
- 임우남, 「소쇄원 48영의 식물시어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천득염, 김대현 공저, 광주문화재단 총서, 『소쇄원』, 심미안, 2018.
- 한예원, 「양산보의 「효부」와 『소학』 정신에 관하여」, 『한문교육연구』 31, 2008.

| Abstract |

Literature of Soswaewon-Wonlim(瀟灑園園林) and Goam(鼓巖) Yang Ja-jing(梁子澂)

Kim, Dae-hyun
Chonnam Univ. Prof.

Soswaewon(瀟灑園)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private gardens in South Korea established in the 16th century. After the founding of Soswaewon, many descendants took care of the garden.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the characteristic of literature of Goam(鼓巖) Yang Ja-jing(梁子澂, 1523~1594), son of Soswaegong(瀟灑公) Yang San-bo(梁山甫),

This thesis is the first to examine the literature of Goam. Goam was a person who was respected by many later students in many ways. Moreover, as we all know, he was the son-in-law of Kim In-Hoo (金麟厚), so there are some related documents.

Goam has been engaged in various literary activities in his entire life, and has written works related to various themes. Among the works left by Goam, some poems lyrically express the beauty of nature. As mentioned above, 10 poems and 3 prose works remain in Goam's works.

It was possible because of his deep relationship with Haseo(河西) that the remaining works were related to the six poetry, and the "Haengjang(行狀)" about Haseo in prose. All of his remaining literary works are of great significance to each other. In addition, the remaining parts of 「Mudeungsan Kiwoojemun(無等山 祈雨祭文)」 show that his literature was developing in

various ways. Although a small number of works remain, it can be inferred that his literature was developed on various themes.

Goam was not only a great poet of Soswaewon-Wonlim(瀟灑園園林) literature in the 16th century, but also seems to have played a major role along with his teacher Haseo, so that Honam literature(湖南文學) flourished in the 16th century.

In this article, I briefly reviewed Goam's literature focusing on the remaining works of Goam.

Key words : Soswaewon(瀟灑園), Goam(鼓巖), Yang Ja-jing(梁子澂), 『Soswaewon-sasil(瀟灑園事實)』